

'현우경' 이야기 (21)

금빛 사자의 성불

사자가 화살에 맞아 죽자 꽃비가...

어느 왕궁에 아자타샤트루 왕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데바닷타가 왕자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의 새로운 부처다.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보지 않겠느냐?”

“지금 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찌 제가 나라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부왕을 죽이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되던 되지 않겠느냐?”

아자타샤트루 왕자는 데바닷타의 말에 넘어가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백성들은 아자타샤트루 왕자를 꾀어내 부왕을 죽이도록 시킨 데바닷타를 몹시 미워했다. 그리고 부처와 스님들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스님들은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오면 빈 밥우만 들고 산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스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굶주리게 되자 부처님을 찾았다.

“데바닷타가 아자타샤트루 왕자를 꾀어내 부왕을 죽이도록 시켜 온 나라 백성들이 저희들을 미워합니다.”

“스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아라한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 마음으로 여러 성현들을 대하기 때문에 많은 죄업과 과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스님에게 믿는 마음을 낸다면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된다. 나도 아주 오랜 옛날 스님을 공경하고 받들었기에 지금 부처가 된 것이니라.”

“어떻게 스님들을 공경하셨습니까?”

“옛날 견서라는 사자가 살았다. 사자의 몸에서는 금빛이 났다. 사자는 다른 동물과 사람들을 절대 해치지 않았다. 오로지 과일과 풀만 먹으며 지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사냥꾼은 머리를 꺾고 가사를 입고 있었다. 사냥꾼은 사자를



삽화·강병호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

“세상에! 저런 사자가 있다니!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구나!”

사냥꾼은 가사 안에 숨겨뒀던 활을 꺼내 독을 묻혀 사자를 향해 쏘았다. 이 광경을 본 사자는 깜짝놀라 얼른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사냥꾼이 가사를 입은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탈할 것이다. 저 옷은 분명 스님의 가사이다. 내가 스님을 해치면 큰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사자는 몸을 피하지 않고 화살에 맞아 죽었다. 사자가 죽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사냥꾼은 이를 더욱 신기하게 여겨, 사자의 가죽을 벗겨 왕에게 찾아갔다.

“집승의 몸이 금빛이면 큰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자의 가죽을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상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임금이 사냥꾼에게 물었다. “사자가 죽을 때 이상한 일은 없었는가?”

“갑자기 하늘이 흔들리더니 꽃비가 내렸 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보았나. 이 사자는 하늘사람들과 인간들의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런 사자를 죽여 놓고 상을 내려달라 하더니!”

왕은 사자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다. 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7가지 보배로 높은 기둥을 만들어 사자 가죽을 걸어 놓았다. 왕과 신하, 백성들은 사자의 가죽에 꽃과 향을 올렸다.

왕은 또 금으로 관을 만들어 사자 가죽을 담아 탑을 세웠다. 백성들은 모두 그 탑에 절을 했다. 왕과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흘

러 모두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냥꾼이 스님은 아니었으나, 사자는 스님인 줄 알고 좋은 마음을 냈다. 사자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태어나 중생들을 다스렸다. 그때의 사자가 지금의 나이며, 왕은 마륵보살이 됐다. 스님 행세를 하며 사자를 죽인 사냥꾼은 지금의 데바닷타이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 성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를 가엽게 여겨, 저희가 지은 죄의 참회를 받아주시시오.”

부처님은 모든 백성들의 참회를 받아 주셨다. 사람들은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으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어 참되게 살아갔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23

- 부처님과 어느 노예의 만남 -

구성·김흥민



패션카페 전국 대리점 모집

'새로운 개념의 여성류판매점 & 커피전문점이 되는 이유 4가지'

- 재고가 전혀 없는 옷가게 패션카페**
본사에서 매주 재고는 거두어가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급함으로써 대리점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수익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좋은 원두 커피와 다양한 메뉴를 거품없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도 여성류와 패션잡화 등의 판매수익으로 수익성은 많이 높아집니다.
- 인테리어! 점주가 직접 하시게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요?**
본사 디자인과 컨셉에 맞추어 직접 시공하실 수 있도록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기술인력(전기, 목공, 도장, 기계설비 등)을 보유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패션카페 마지막 대리점은 360호점입니다.**
대리점의 권리를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전국 360개 대리점까지만 진행합니다.
- 수익성때문에 고민하시는 커피전문점 업종변경 가능합니다.**
간단한 시설 추가로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fashion cafe

Korehan

www.fashion-cafe.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8-5
☎ 070-7759-0852

나눔과 공생으로 큰 하나 되어가는 공생실천 캠페인

'공생장터'

법우님들의 경기 부양과 재능 나눔을 위하여 현대불교 협찬으로 **공동 운영 소규모 '공생장터'**를 운영합니다. 법우님 또는 신행단체에서 생산하시는 제품과 상품, 농산물, 문화 활동, 재능과 기능 등 홍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여 개의 품목을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품목은 사진작업과 온라인 이미지 작업, 소포몰 주문 및 배송관리, 행정업무 등을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와 함께 천여 명의 공생인들과 신행단체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상품을 홍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참가 자격: 불자 및 각 종 신행단체
문의: 070-4122-0041 공생장터
www.gongseang.com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